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5월 2일(화) 14시 30분 이후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5월 1일(월)

## 미래 세대와 함께 하는 소통의 공간

-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대국민 개방 -

-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추진 예정인 약 9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을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앞 부분 반환부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여 5월 4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한다.

\* 뉴욕 센트럴파크 면적 : 약 103만평, 여의도 면적 : 약 88만평

- 이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성과를 하루빨리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년간의 준비를 거친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하였다.

### I. 용산기지의 역사와 이번 개방의 의미

- 이번에 임시개방하는 반환부지는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금단의 땅이었던 곳으로,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주권회복의 상징적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과거부터 용산은 한강의 수운과 가깝고 전국의 물류가 모이는 곳으로, 남산의 산세와 연결되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구한말에는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군이 진영을 꾸려 흥선대원군을 피랍하기도 했고, 1894년 청일전쟁 시에는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번갈아 주둔하기도 했다.

-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제가 용산일대 약 300만 평의 군용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일본군의 용산 주둔은 본격화되었다. 특히, 1908년 일본의 조선주차군사령부가 남산에서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산의 군사기지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용산의 조선주차군사령부는 조선총독부와 함께 일본 식민지배의 양대 축이 되었다.
-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일본의 군사기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미 7사단 병력이 용산에 잠시 주둔했으며, 일본군 무장해제가 완료된 후 1949년에는 대부분의 병력이 철수했다. 그러나 6.25 전쟁 발발 후 1952년 다시 용산기지가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면서 최근까지 미군의 용산 주둔 시대가 이어졌다.
- 2000년대에 들어서 한미 정상 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합의되면서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용산기지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수도 한복판에 위치한 상징성을 감안하여 국가공원으로 조성기로 결정되었고, 2007년에는 용산공원의 조성 및 기본이념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용산공원 조성의 기반 방향을 담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는 2012년 국제공모를 통해 마련한 미래 용산공원의 밑그림을 준비하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 2022년에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용산공원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대통령실 이전을 계기로 기지반환을 위한 한미 간 합의가 가속화되면서 용산기지 243만㎡(약 74만평) 중 2022년에만 58.4만㎡(약 18만평)이 반환되었고, 이 중 대통령실과 인접한 30만㎡(약 9만평)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여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임시개방은 그간 미군의 평택 이전이 20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공원조성도 함께 미뤄지게 되는 한계와 함께, 기지의 완전반환 후에도 건축물 및 환경조사, 토양정화, 공원조성에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단의 땅 용산을 국민

들에게 조속히 돌려드리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Ⅱ. 용산어린이정원 공간 소개

- 용산어린이정원은 임시개방의 취지를 살려 종전 미군기지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여가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였다. 전체 공간은 주출입구로 들어와 마주하게 되는 장군숙소와 정원의 중심이 되는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로 구성된다.
- 장군숙소 지역은 실제 미군 장교들이 거주했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 주택을 문화·휴식·편의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다. 건물의 외관과 거리·마당 등 외부공간을 그대로 보존하여 마치 미국 소도시에 온 것 같은 이국적 풍경을 느낄 수 있다.
  - (주출입구) 용산어린이정원의 주출입구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 및 병참기지화를 위해 설치한 한국주차군사령부의 정문으로 쓰였던 곳이다. 해방 후에는 미 7사단 사령부의 정문으로 사용됐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병커와 기지 내에 위치한 121 병원의 출입구로 사용되었다. 미군기지에 있던 총 21개 출입구 중 14번째, 게이트 14로 불리기도 했던 이 곳은 이제 대통령실과 가장 가까운 출입구이자 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을 주로 맞이하는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 (홍보관) 미군 숙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홍보관에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후 미군 주둔, 그리고 이번 임시개방까지 용산기지의 120년 역사를 지도와 연표, 사진으로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금단의 땅이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 (용산서가) 용산서가는 관람객의 휴식과 독서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어린이를 위한 ‘동화’와 어른을 위한 ‘사색’이라는 주제의 두 공간으로 구분된다. ‘어른들의 서가’에서는 탁 트인 통창을 통해 장군숙소의 시원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세종도서 선정작을 기준으로 큐레이팅된 책들을 읽어볼 수 있다. ‘어린이의 서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아들을 위한 책들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게 계획하였다.

- (전시관) 상설전시가 열리는 전시관에서는 ‘온화(溫火, Gentle Light) - 따스한 불빛으로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의 미래를 밝히다.’를 주제로 한 사일로 랩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용산의 미래를 밝혀나가려는 염원을 담아 1,500개의 전통창호 모양의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방문객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음마당) 전시관 옆에 위치한 이음마당은 푸르른 녹음 속에 자리잡은 야외 휴게공간이다.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서, 버스킹이나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이벤트들이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벤트하우스) 잔디 정원을 갖춘 이벤트하우스는 일제강점기에는 참모장 관사로 쓰였고, 미군 주둔 후에는 장군숙소 부지 중 유일한 장성급 관사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이벤트하우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카페 어울림) 잔디마당과 맞닿은 곳에 위치한 카페 어울림에서는 천장 구조를 노출하여 꾸며진 개방감 있는 공간에서 음료와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외부로 연결되는 데크에 앉아 드넓은 잔디마당과 가로수길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탄소저감 원두를 사용하거나 발달장애인이 제작한 간식을 판매하고, 용산지역 청년카페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소통’과 ‘연대’의 가치도 지향해나갈 계획이다.
- (기록관1\_수하우스) 기록관1은 1967년부터 3년간 용산 미군기지에 살았던 수 코스너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당시 미군 가족의 집을 재현한 곳이다. 수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실, 공군이었던 수 아버지의

서재, 그리고 기지 내의 학교를 함께 다녔던 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수의 방을 통해 당시 용산기지 내 미군가족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 (기록관2\_기지이야기) 기록관2는 과거 용산 미군기지의 모습을 기록한 공간과, 60~70년대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미8군 클럽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미 8군 클럽에서 태동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함께 당시의 가수들의 대표곡을 LP판으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다.

- (잔디마당) 용산어린이정원의 중심에는 서울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약 2만평 규모의 잔디마당이 펼쳐져있다. 과거 4곳의 미군 야구장이 있던 곳을 새롭게 단장한 이곳은, 가족 단위 방문객의 휴식처이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다.

- 잔디마당 주변으로는 세 가지 주제의 산책로가 조성돼있다. 플라타너스가 아름다운 가로수길 옆 꽃마루에서는 시원한 그늘 속에서 초화를 즐길 수 있고, 이어지는 하늘바라기길에서는 기다란 의자에 걸터 앉아 대통령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이 길과 연결되는 들꽃산책로에는 다양한 종류의 들꽃이 어우러져 계절에 따라 풍성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 (전망언덕) 잔디마당 한편으로는 용산어린이정원은 물론, 남산, 용산도심,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언덕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곳에서는 대통령실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어 미국의 백악관 앞 공원과 같은 열린 소통공간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곳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십종의 꽃들이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어, 앞으로 방문객들의 눈을 더욱 즐겁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스포츠필드) 용산어린이정원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는 스포츠 꿈나무를 위한 만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이 마련돼있다. 5월 4일 개방과 함께 대통령실 초청 전국유소년야구대회와 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예약을 통해 일반 유소년 팀도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다.

### Ⅲ. 용산어린이정원 환경 관리

- 정부는 부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 모니터링을 촘촘히 시행했고, 용산어린이정원 이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 우선, 작년 9월과 11월, 올해 3월에 실내 5곳, 실외 6곳에 대해 공기질 측정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주변지역 4곳과 비교측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외 공기질은 환경기준치 이내로 주변 지역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고, 실외 공기질도 관련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 또한, 이번에 임시개방 전 지역에 걸쳐 15cm 이상 흙을 덮은 후 잔디 등을 식재하거나 식생매트 설치, 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개방 기간 동안 환경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갈 예정이다.

### Ⅳ. 운영 및 이용 안내

- 정부는 향후 용산어린이정원의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특히,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캐릭터 전시, 화분만들기·페이스페인팅 등 체험이벤트, 용산어린이정원 탐방 스탬프 투어 등을 진행하는 한편, 생활체육행사, 클래식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한다.
- 아울러, 플라타너스가 우거진 가로수길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수요 버스킹과,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주말 버스킹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 도슨트와 함께 용산기지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는 워킹투어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 향후,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체험 프로그램과 강좌도 운영될 계획이며, 어린이 단체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문의를 통해 맞춤형 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www.yongsanparkstory.kr](http://www.yongsanparkstory.kr))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방문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즉시입장도 가능하다.
  
-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주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담장과 연결되는 부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문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으로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을 가꾸는 데 힘쓰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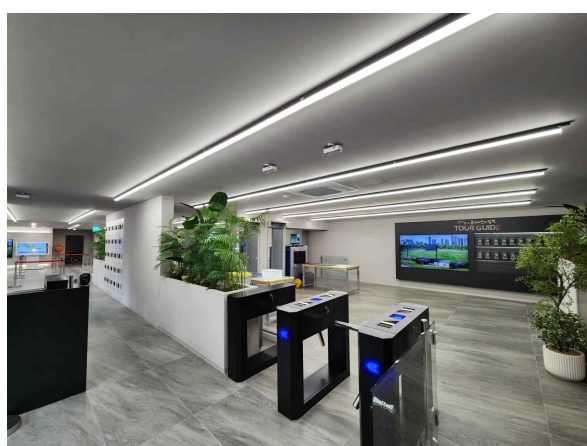
## 참고 1

## 용산어린이정원 주요 공간 소개

### □ 시설 안내



### □ 종합안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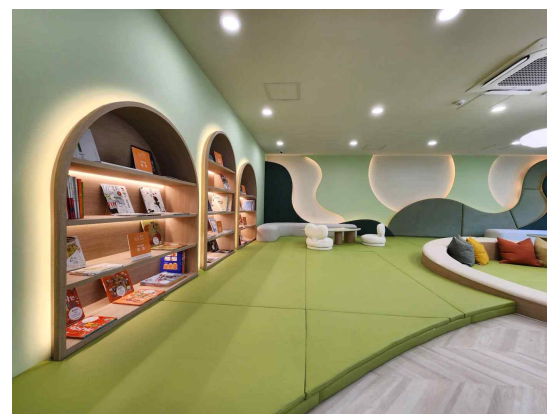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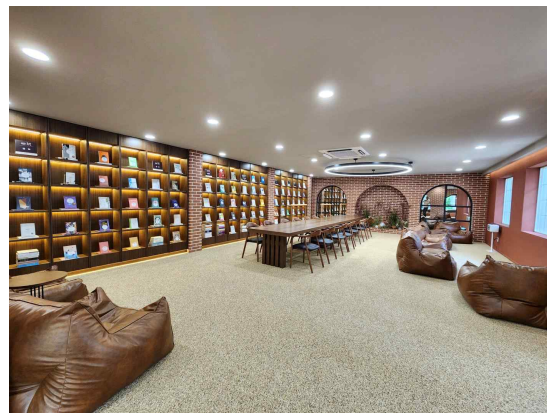


## 보도참고자료

☐ 홍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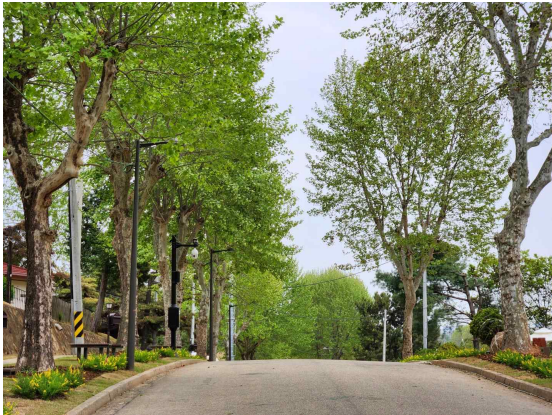


☐ 용산서가



## 보도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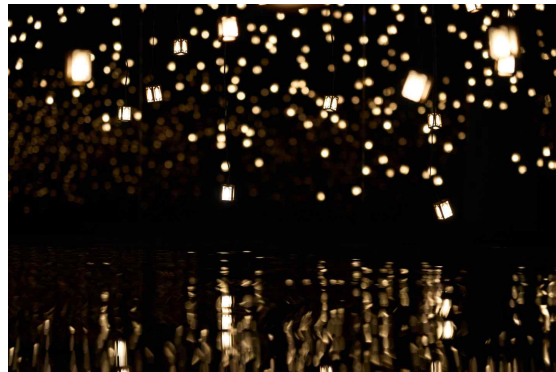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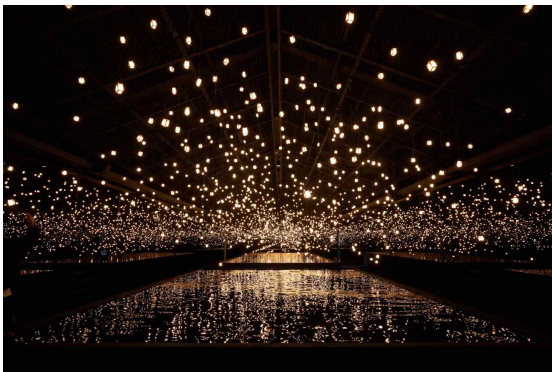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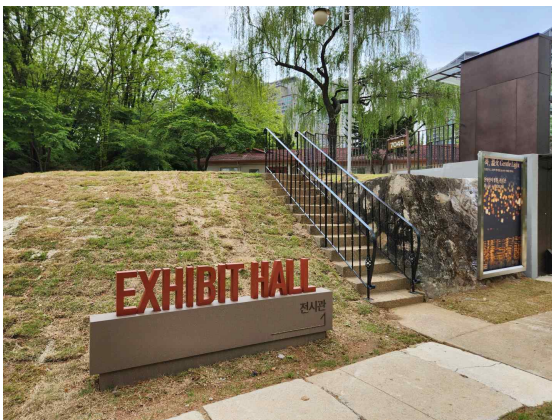
### □ 장군숙소 도로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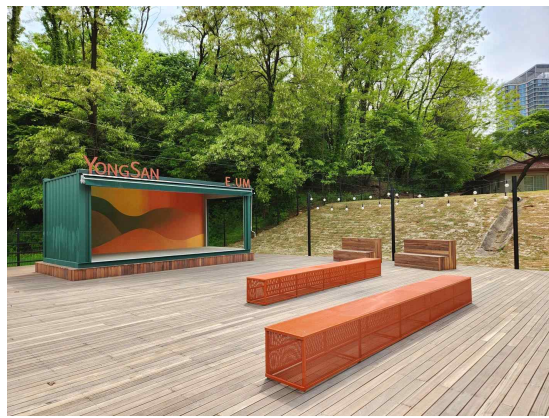
관리비서관실

### □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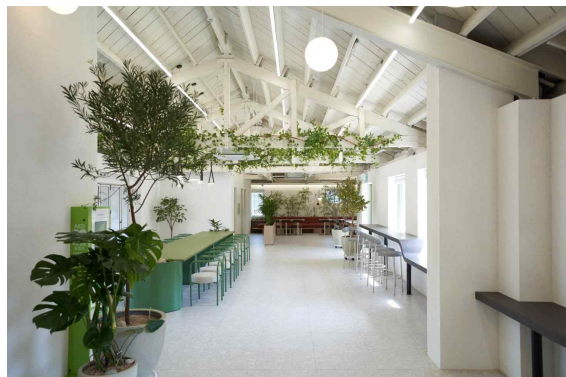
□ 이음마당



□ 이벤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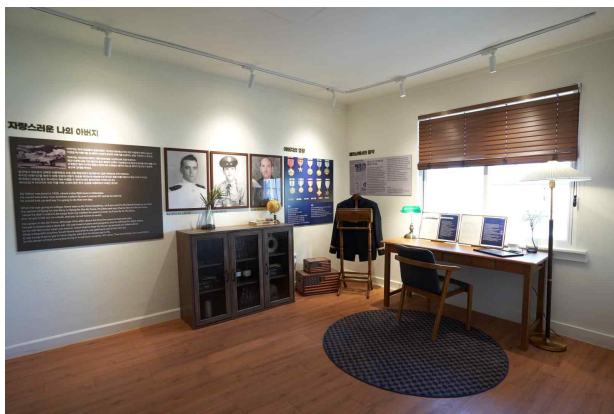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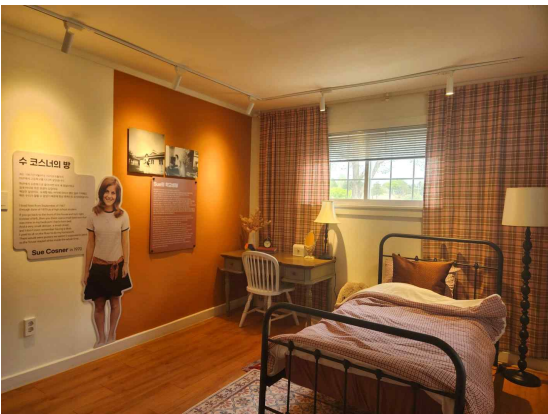
□ 카페 어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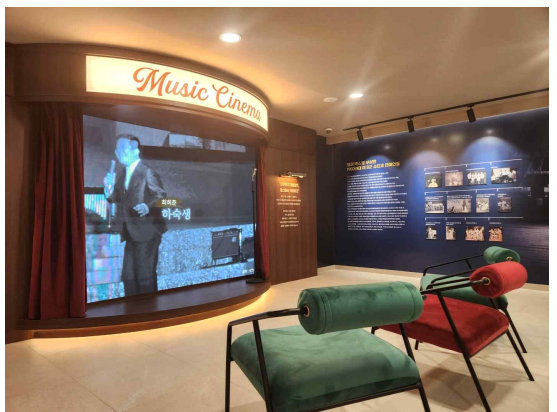


## **보도참고자료**

### □ 기록관1\_수하우스



### □ 기록관2\_용산기지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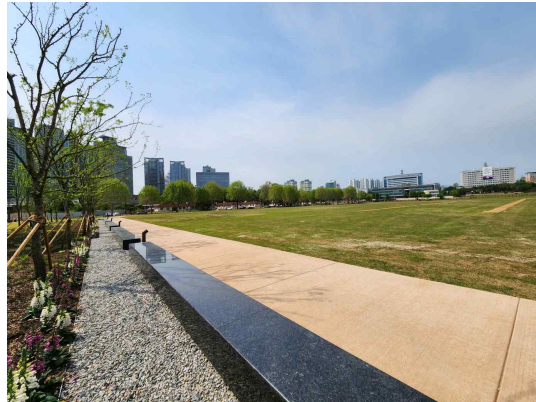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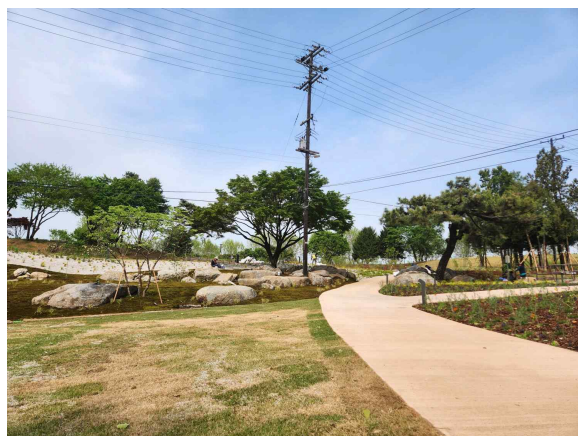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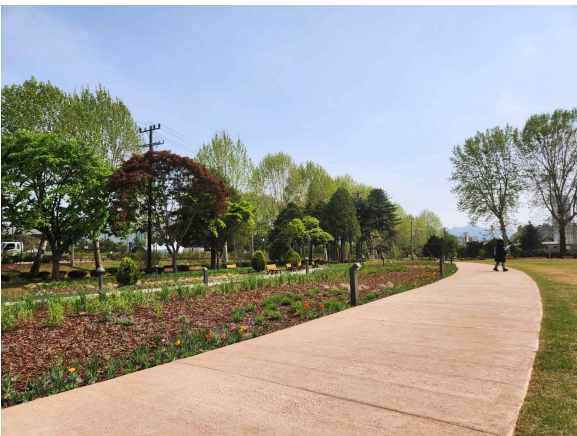
□ 가로수길, 꽃마루



□ 잔디마당, 하늘바라기길



□ 잔디마당\_들꽃산책로



☐ 전망언덕





☐ 스포츠필드







# 국민과 함께,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2023.05.04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방문예약 바로가기



참고 3

전시관 - 기획전시 포스터

